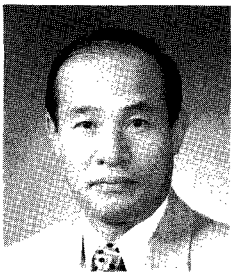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IB백신 접종 계군에서 IB발생

북해도 가축보건위생소에서는 IB(전염성기관지염)백신 접종 양계장에서 가벼운 호흡기 증상과 낮은 산란율을 주증상으로 하는 IB발생 사례를 보고하였다. 발병계는 입을 벌리고 호흡하며 이상 호흡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발병증상은 약 4주간을 경과하여 없어졌으나 폐사계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산란율은 정상보다 10% 정도 낮았으며 발병계군은 도입선에 IB생독백신 2회 사독백신 1회를 실시하였다. 발병계의 병리해부 소견으로는 기관 및 기관지에 염증성 변화, 수란관과 난소의 발육부전, 신장의 퇴색과 종대 등을 보였다.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폐의 2차 기관지의 염증성 변화와 고유층의 림파구침윤 신장에서는 세노관의 석회 침착을 보였다. 면역조직학적 검사에서는 기관과 폐의 2차 기관지 점막상 피세포에서 IB바이러스 항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학적 검사에서는 폐조직분쇄물에서 IB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기관, 폐, 동결점편의 형광항체검사법에서는 IB바이러스 항원이 양성되었고 폐조직분쇄물의 전자현미경 검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를 확인하였다. IB바이러스의 미아자끼주의 중화항체 검사에서는 발병시 중화지수가 0.5미만, 회복시에는 5.0이었다. 이상의 검사성적을 종합하여 볼 때 급번 발병에는 접종한 백신주와 교차면역이 적은 미아자끼주에 가까운 혈청형의 IB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발병계군의 낮은 산란율을 보인 것은 발병시에 이미 난소 발육부전의 무산계가 되어 있던 개체가 존재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NK. 1999. 2)

□ 괴저성 피부염(빠다리병)의 예방

1. 계사내에서 닭의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제거한다. 예를 들면 못이나 계사벽에서 튀어나온 날카로운 부분, 발육에 따라 장비 조절이 안된 경우, 작업후 계사내에 남겨둔 사다리, 손수레 등 2. 적정 사육밀도를 지킨다(특히 털갈이가 늦어 분리 사육되는 수탉은 더욱 사육 밀도가 충분해야 한다). 밀시는 털갈이 시에 서로 피부의 상처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3. 비

타민(바이오틴, 판토텐산, 비타민E)과 광물질(아연, 셀레늄)이 적정수준으로 배합된 사료를 급이한다. 4. 카니발리즘과 적절한 깃털발육을 돕기 위하여 필수아미노산(특히 유황 아미노산)과 소듐, 인, 단백질이 균형있게 배합된 사료를 급이한다. 5. 특히 육계 계군은 날아다니고 너무 도전적이 되지 않도록 점등시간과 점등광도를 줄인다. 점등시간과 점등광도의 감소는 사료섭취 후 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므로 사료효율을 높이고 다리 문제를 줄일 수 있다. 6. 종계 육계계군과 칠면조계군에서는 서로 쪼는 습관으로 피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디비킹(부리자르기)을 실시한다. 7. 항콕시듐제와 클로스트리디움균(피저성피부염원인균)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여 소화장기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항콕시듐제는 소화장벽의 파괴를 보호하여 클로스트리디움균이 혈류를 통하여 전신감염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며 깔짚과 닭의 소화장기내의 클로스트리디움균의 세균수를 감소시킨다. 8. 아프라톡신(곰팡이독소)은 면역기능을 억제하고 부패한 지방은 비타민E와 셀레늄의 요구량을 증가시키므로 아프라톡신과 부패한 지방이 유해한 수준으로 배합된 사료가 급이되지 않도록 한다. 9. 스트레스 자체는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므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양호한 환기관리와 적정온도 관리, 수당적정사육면적, 급이면적, 급수면적과 같은 사양관리가 적합하여야 한다. 10. 사료 급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제한급이시에는 급이기 구조에 따른 적합한 급이방법과 충분한 급이기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11. 계사내에서 작업하는 관리자는 닭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여 닭의 피부상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가능한 조우성 품종의 닭을 사육한다. 털갈이가 빠른 닭은 피부상처와 염증이 발생될 위험이 적다. 13. 최근에 권장되는 마렉 병백신과 감보로병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하며 가능한 CAA(닭전염성 빈혈증)의 모체이행항체를 보유한 초생추를 입추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백혈병(J그룹)바이러스는 면역기능저하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혈병에 감염된 닭은 피저성 피부염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백혈병에 감염되지 않은 종계에서 생산된 초생추를 입추한다. 14. 너무 건조한 시기에는 적절한 습도를 부여한다. 건조한 기후는 피부의 건조와 민감도를 높여 피부의 보호 기능저하와 상처를 일으키기 쉽게 한다. 15. 계군도태후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가능한 계사 휴식기간을 유지한다. 염소와 요오드가 포함된 소독제와 같이 클로스트리움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이 포균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이들 소독제는 계사내 유기물질을 세척 제거한 다음에 사용할 때 효과가 발휘되며 이들 소독제에 의해서도 클로스트리디움균은 많이 감소하지만 이포균은 제거되기 어렵다. 16. 토양은 수산화나트륨(NaOH) 2.3% 용액이나 이황산수소나트륨 2% 용액을 분사하여 pH(산도)를 바꾼다. 17. 피저성피부염이 발생되면 감염계군에 항생제(비지니아마이신, 린코마이신, 바시트라신 등)를 사료에 첨가한다. 이미 이러한 항생제가 사료에 첨가되었으면 법적허용 수준까지 첨가수준을 높인다. 18. 피저성피부염이 발생 기간중에는 하루에 4번 이상 폐사계를 수거하여 매몰 또는 소각한다. 폐사계는 계사내의 오염과 미감염된 닭에게 전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PD. 1999. 1)